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의 문제 행동, 자아지각, 사회적 상호작용 및 놀이치료 과정에서 유아의 반응 변화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hildcare Center Based Play Therapy on
Infant's Problem Behaviors, Self-Concept, Social Interaction
and Infant's Response Changes during Play Therapy*

양선영(Sun Young Yang)¹⁾

한유진(You Jin Han)²⁾

ABSTRACT

The study was performed at a childcare center based play therapy to help ameliorate the problems of infants in the borderline, self-concept, social interaction, infant's response changes observed during play therapy.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twenty eight infants between the ages of 4 to 5 years who exhibited behavior problems. All subjects were located in the Seoul. The play therapists were sent to the child care center, and conducted 16 sessions of play therapy to infants exhibiting problem behaviors. In summary, the results indicated the following. First, childcare center based play therapy was effective in improving infants' behavior problems in the borderline areas outlined above. Second, childcare center based play therap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elf-concept of infants. Third, childcare center based play therap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interaction

* 본 논문은 2013년도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3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¹⁾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박사

²⁾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You-jin Han, Dept. of Child Development & Education, Myoungji University, 34 Geobukgol-ro,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E-mail : yjhan@mju.ac.kr

among the infants. Finally,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esponses of infants during childcare center based play therapy.

Keywords :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childcare center based play therapy), 문제 행동(problem behaviors), 자아지각(self-concept), 사회적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놀이치료과정에서 유아의 반응 (infant's response during play therapy)

I. 서론

유아기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통해 성장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여러 가지 능력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다(Kang & Oh, 2010). 양육자의 보호를 받는 영아기에서 유아기로 사회적 환경이 확대되면서 유아들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문제 행동들이 나타난다(Bae, Lee, & Cho, 2013; Moon & Lee, 2012). 유아의 문제 행동은 사회 및 정서 발달에서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서 벗어난 행동을 보이거나 환경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적, 정서적 부적응의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Han, 1996; Kauffman, 1997; Kim & Hwang, 2008). 즉, 심한 정신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개인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거나 인지, 정서, 신체, 사회성, 도덕성 등에서 부적절하거나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최근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와 영유아 무상 보육의 실시로 인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많은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유아들이 문제 행동을 보일 때 교사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Birch & Ladd, 1997; Hamre & Pianta, 2001), 또래 관계에서도 문제 행동으로 인해 거부당하거나 고립되는 등

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Hartup, 1967; Ladd & Burgess, 2001; Shaffer, 1988).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문제 행동을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상담이 보편화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가진 유아들은 상담기관이나 병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임상 수준에 속하지 않으며, 정상 발달 수준에도 속하지 않는 경계선 상에 있는 유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모든 유아들에게 일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복지의 개념에서 살펴볼 때, 선별적으로 임상 수준의 유아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는 늘어나고 있지만(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상의 유아들은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다. 문제 행동의 경계선 상의 유아들을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위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 역시 임상수준의 유아들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문제 행동의 경계선 상의 유아들을 위한 심리적 접근이 매우 필요하다.

유아기에 나타나는 문제 행동은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심리적 문제들보다 예후가 훨씬 좋지 않으며 만성화되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12; Mash & Wolfe, 2002). 즉 문제 행동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의 문제 행동을 조기에 차단하게 되면,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고, 유아의 발달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보다 적응적인 학령기로 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정과 사회는 문제 행동이 지속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놀이치료는 자신의 정서적 요구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가진 아동이 놀잇감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현재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건강히 다루는 매우 효과적인 접근방법이다(Chung & Lee, 2003; Jang, Son, & Kim, 2009; Post, 1999). 아동은 놀이를 통해 상징적으로 자신의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표현하고 자신의 욕구와 환상을 나타내며, 내적인 상태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Landreth, 2010).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놀이치료를 통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내적인 자아를 재구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며 성장하게 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학교 놀이치료가 시행되면서 학교 안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성공적인 학습 효과와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Blanco, 2010). 또한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이나 ADHD, 공격성, 분노조절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에게도 학교 놀이치료를 적용하여 큰 효과를 보고 있다(Athena, Lois, & Charles, 2010). 학교 놀이치료란 아동중심 놀이치료 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학교의 작은 공간을 치료실로 구성하여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에게 놀이치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Blanco, 2010; Schumann, 2004). 학교 놀이치료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보다 많은 아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내적으로 정서가 약해 치료실을 찾지 못하는 아

동들에게 매우 유용한 접근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더욱 심각한 정신적 장애로 발전하기 전에 개입함으로써 약물 남용이나 사회적 범죄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Zelman, 1996). 그러나 학교 놀이치료가 학령기 아동들에게만 제공되고 있어, 더욱 어린 시기인 유아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과 개입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의 심리적 문제를 다룬 국내의 연구들을 볼 때, ADHD성향 유아에게 사회정서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Lee & Kim, 2009), 공격적 성향의 유아에게 자기 조절 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Kyu & Kim, 2008; Park & Song, 2011), 사회, 정서, 행동문제를 가진 유아에게 집단 미술치료를 적용한 연구(Jung & Gu, 2004; Lee & Chae, 2010)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정서, 행동적 문제를 가진 유아들을 위한 음악, 미술, 놀이치료의 단일 사례연구(Han, An, & Chae, 2001; Jung & Lee, 2003; Kim, 2013)들이 이루어졌다. 특히 문제 행동을 위한 유아들에게 놀이치료를 적용한 연구들은 단일 사례연구에 그치고 있어 그 내용을 일반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 치료실을 구성하고, 놀이치료자를 훈련시켜 보육시설로 파견하여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에게 아동중심 놀이치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용한 이유는 유아들이 대부분의 낮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많은 유아들이 이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심각한 문제 행동은 아니지만 보육시설에서 개인적, 사회적 영역의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에게 그 수준에 맞게 도울 수 있으며 예방적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제 행동을 보

이는 경계선 상의 유아들에게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를 적용하여 이들의 개인적, 사회적 적응을 돕고자 한다.

보육시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은 부정적인 타인의 평가로 인해 자신을 쓸모 없는 존재로 생각하거나 가치있게 평가하지 못한다(Chung, 2009; Kim, 2001). 유아의 자아 지각은 사회, 정서 발달의 핵심이고 이후의 학업 성취를 예상케하며, 대인관계와 정서적인 발달 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Coie, Dodge, & Coppotelli, 1982). 자아지각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볼 때 자기를 가치있게 생각하고 평가하며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인 능력에서 긍정적 자기 개념을 갖는 유아들일수록 부모, 교사,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한다고 보고하며(Kim, 2006; Woo, 2001), 문제 행동 또한 적게 보인다고 한다(Lee & Beak, 2004; Verschueren, Marcoen, & Schoefs, 1996).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아를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는 유아의 적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보육시설에서의 문제 행동은 보육시설안의 주된 상호작용 대상인 교사와 또래와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교사와 유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아들은 사회적 유능감이 향상되고(Howes, 2000; Lee, 2009),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irch & Ladd, 1997; Ewing & Taylor, 2009; Howes, 2000; Murray, Murray, & Waas, 2008). 또한 유아와 교사와의 관계가 갈등과 의존적일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인해 보육시설의 활동에 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Birch & Ladd, 1997; Jarom, Hamre, & Pianta, 2009; Kim & Kim, 2011). 유아기의 문제

행동은 부정적인 교사-유아와의 관계로 인해 시간이 흐르면서 문제가 계속 지속되거나 보다 심각해지기도 한다(Myers & Pianta, 2008).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을 다루는 것은 보육교사에게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문제 행동 유아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보육교사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는 다른 유아들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 관계는 보육시설에서의 성공적인 적응 뿐 아니라 이후의 학교 생활 적응 및 학문적인 성공과도 연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아들이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것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지원하는 일이다(Petty, 2009; Shin, Kwon, & Jeong, 2010). 문제 행동 유아와 또래관계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공격적, 회피적, 또는 상황에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또래의 발달 및 학습경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Walker, Berthelsen, & Irving, 2001). 또한 쉽게 위축되거나 우울해있거나 우는 행동이 잦은 유아들은 또래들로부터 공격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wartz, Mcfadyen-Ketchum, Dodge, Pettit, & Bates, 1999). 보육시설 안에서의 부정적 관계가 부적응적 행동을 유발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는 보육시설에서의 문제 행동 유아와 교사, 또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는 활발히 나타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관계의 고리를 끊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며, 유아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심리치료 서비스인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시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계선 상의 유아들에게 놀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발달을 촉진하고 긍정적 성장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즉,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의 문제 행동과 자아 지각 및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놀이치료 과정 안에서 유아의 놀이치료 반응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놀이치료가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보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실시 후 문제 행동 유아의 문제 행동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실시 후 문제 행동 유아의 자아 지각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실시 후 문제 행동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교사, 또래)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과정에서 유아 반응의 유의한 변화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시 서대문구의 D어린이집과 은평구에 있는 S어린이집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만 4~5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만 4~5세의 유아들을 선정할 이유는 예비

초등학생으로 유아기의 문제가 더 이상 학령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문제 행동의 경계선 상에 존재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Behar와 Stringfield(1974)의 PBQ(The Preschool Behavior Questionnaire)를 번안하여 사용한 Kim(2007)의 유아 문제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유아가 속한 교육기관에서 보이는 문제적 행동들을 측정하기에 적합하다(Behar & Stringfield, 1974).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제 행동 척도는 68개의 문항으로 문항 수가 많아 모든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크해야 하는 보육교사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문항수가 적은 PBQ척도를 사용하여 Screening Test를 실시하였다. PBQ척도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2점)’의 3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최저 0점에서 최대 60점까지 점수가 분포된다. 전체 125명의 유아들을 4그룹으로 나누었는데 0~15점 사이에 분포한 유아들은 81명(68%)으로 나타났으며, 15~30점은 23명(18.4%), 30~45점은 13명(10.4%), 45~60점 사이의 유아들은 8명(6%)으로 나타났다. 0~15점사이의 유아들은 문제 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룹으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45~60점 사이의 유아들은 문제 행동이 높게 나타나 상담센터나 소아정신과와 연결되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5~45점 사이에 존재하는 유아들을 문제 행동 경계선 유아로 선정하였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만 4~5세의 어린이집에서 문제 행동의 위험이 있는 유아 중 이전에 놀이치료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는 유아 36명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유아 36명 중 교사들의 면접내용과 문제 행동척도의 점수를 가지고 두 집단으

로 나누어 18명은 실험집단에, 나머지 18명은 통제집단에 무선 배치하였다.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진행 도중 다른 상담 센터에서 놀이 치료를 중복으로 받고 있는 유아 1명과 어린이집의 잦은 결석으로 인해 놀이치료가 진행되지 못한 유아 1명, 놀이치료사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가 중단된 유아 2명은 사례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실험집단 14명, 통제집단 14명이 구성되었다.

연구 대상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상세한 분포는 Table 1과 같다.

선정된 유아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교사들의 면접을 실시한 결과, 주의 산만함을 문제로 나타난 유아가 15명(53.6%), 공격적 행동을 문제 나타난 유아가 4명(14.3%), 우울이나 불안감을 문제로 나타낸 경우가 6명(21.4%), 사회성 부족을 문제로 나타낸 경우가 3명(10.7%)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놀이치료자는 초보놀이치료자로 구성되며, 초보놀이치료자란 놀이치료자가 되기 위

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치료자로서 치료 경력 3년 미만의 치료자를 말한다(Jeong & Cho, 2009; Shin & Chung, 2007). 본 연구의 놀이치료자들은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석사과정의 대학원생 5명으로 석사과정 2학기 4명, 3학기 2명이 참여하였다. 훈련 교육 중 석사과정 2학기 1명의 훈련생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제외되어 총 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놀이치료자들은 대학원 과정에서 ‘놀이치료 이론과 실제’와 ‘아동중심놀이치료’과목을 수강한 놀이치료자들로 구성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놀이치료자들은 놀이치료 경험이 1~2사례의 경험이 있는 초기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를 초보놀이치료자들의 실습 훈련 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놀이치료자들에게 약 20시간의 아동중심놀이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훈련을 연구 전에 실시하였으며, 놀이치료 후에는 약 24시간의 집단 수퍼비전 모임을 통해 사례에 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fants

Variable	Group	Experimental group	Comparative group
		Number(percent)	Number(percent)
Sex	Boys	8 (57.1%)	9 (64.3%)
	Girls	6 (42.9%)	5 (35.7%)
	Total	14 (100%)	14 (100%)
Age	4yrs	5 (35.7%)	9 (64.3%)
	5yrs	9 (64.3%)	5 (35.7%)
	Total	14 (100%)	14 (100%)
Birth order	First	7 (50.0%)	7 (50.0%)
	Second	3 (21.4%)	7 (50.0%)
	Third	1 (7.1%)	0 (0.0%)
	Only Children	3 (21.4%)	0 (0.0%)
	Total	14 (100%)	14 (100%)

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놀이치료자들은 한 사람당 3명의 유아들을 맡아 놀이치료를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문제 행동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아의 문제 행동 척도는 Koh(2008)이 개발한 ‘교사용 유아 문제 행동 평가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으로는 공격성, 주의산만, 사회성, 도덕성, 우울, 불안, 틱, 배설, 섭식, 인지발달, 성, 신체발달로 12개이다.

본 연구에서는 12개의 하위 척도 중 유아가 보육시설에서 적응의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격성, 주의산만, 사회성, 도덕성, 우울, 불안 6개의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보육교사들이 호소한 유아들의 문제들이 대부분 주의산만과 공격성, 사회성과 우울 및 불안에 관련된 문제들이었으며, 나머지 문제들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파악하거나, 발달의 문제를 측정하는 것으로 호소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행동 문제로 공격성 13 문항, 주의 산만 15문항, 사회문제로 사회성 14 문항, 도덕성 8문항, 정서 문제로 우울 7문항, 불안 11문항, 총 68문항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공격성의 문항들로는 ‘물건을 일부러 망가뜨린다’, ‘다른 아이와 자주 싸운다’ 등이며, 주의산만의 문항들로는 ‘장시간 집중하거나 주목할 수 없다’, ‘항상 부산스럽다’ 등과 같이 행동적 문제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성 문항은 ‘놀잇감이나 먹는 것을 친구와 나누려고 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이 있으며, 도덕성 문항은 ‘거짓말을 잘한다’ 등의 문항으로 또래관계의 문제 행동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우울에 관한 문항으로는 ‘매사에 흥미가 없고 귀찮아한다’

등의 문항이며, 불안에 관한 문항으로는 ‘매사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염려한다’ 등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문제 행동 척도의 채점은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문제 행동 척도 Cronbach's α 는 .96이다. 하위 요인의 Cronbach's α 는 공격성 .94, 주의산만 .94, 사회성 .86, 도덕성 .83, 우울 .75, 불안 .62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문제 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교사의 보고 뿐 아니라 부모의 보고 또한 중요한 변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척도를 부모와 교사가 함께 실시하였다.

2) 유아의 자아지각

유아의 자아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Harter와 Pike (1984)의 도구인 지각된 능력과 사회적 수용그림 척도(The pictorial scale of perceived competence and social acceptance for young children)를 Lee, Choi와 Kim(1990)이 수정한 ‘유아용 자아 지각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본 연구자와 아동학과 전공 박사 학위자 2명이 어린이집의 독립된 방에서 개별 유아에게 실시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의 인지 능력, 신체적 능력, 또래 수용정도, 어머니 수용정도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나누어진다. 4가지 하위 요인은 각각 6문항, 총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문항마다 2개의



〈Figure 1〉 Example of self concept question

그림을 제시하고 해당 문항의 질문을 한다.

예를 들어 “오늘 선생님과 ○○하고 그림 찾기 놀이를 했는데, ○○와 가장 비슷한 어린이를 골라내는 놀이예요. 선생님이 이제부터 그림에 나온 어린이들이 각각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테니까, 이 중에서 골라보세요. 이 그림에서 (오른편을 가리키며) 이 어린이는 행복하고, (왼편을 가리키며) 이 어린이는 행복하지 않아요. ○○와 비슷한 어린이는 이 둘 중에서 어느 어린이인가요?” 라고 질문한다. 유아가 둘 중에 하나인 행복한 그림을 선택하면 “그렇다면 ○○이는 아주 많이 행복한가요? 아니면 보통으로 행복한가요?”라고 질문하여 정도를 측정한다. 유아가 둘 중에 하나인 행복하지 않은 그림을 선택하면 “그렇다면 ○○이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아니면 조금은 행복한가요?” 질문하여 다시 한번 응답하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각 문항에 대한 질문이 끝날 때마다 검사자는 유아의 응답에 따라 해당 문항에 1점(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으로 표기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자아지각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5이다.

3) 교사와 유아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교사와 유아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ianta(1999)가 고안하고 Lee(2001)가 번역한 ‘교사-유아와의 상호관계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친밀감, 갈등, 의존성의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나뉘며, 친밀감 13문항, 갈등 13문항, 의존성 4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와 유아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4이다.

4) 또래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Fantuzzo와 Kwon(1998)의 PIPPS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을 참조하여, Choi(2004)가 번안, 수정한 ‘교사용 또래 상호작용 행동 평정 척도’를 다시 Koh(2009)가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PIPPS는 아동의 놀이 상호작용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교사 평정 척도로서 놀이 지속 행동(친사회성 관련), 놀이 방해 행동(공격성 관련), 놀이 중단(위축 관련)의 3개 하위요인, 총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에서 보여주는 행동과 관련된 문항만 선정하여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 행동과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으로 명명하고 요인 분석하여 총 20개의 문항인 것에 Koh(2009)가 다시 문항을 추가하여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 행동 15문항,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행동 5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또래 상호작용 행동 평정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 행동은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 행동은 점수가 낮을수록 또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0이다.

5) 아동의 놀이치료 반응 관찰 척도

놀이치료 과정에서 유아가 치료자와 접촉하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반응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Lee(2013)의 ‘아동중심놀이치료에서의 아동 치료자 반응 관찰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중심 놀이치료 장면에서 놀이치료 과정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타당화 작업을 거친 척

도로(Lee, 2013), 반응 양식 4문항과 반응 내용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응 양식은 유아의 언어표현, 대화 형태, 행동/표정, 반응속도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응 내용은 주도성, 적응성, 유연성, 구조화, 놀이반응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주도성은 유아가 놀이치료 장면에서 얼마나 주도적인 반응을 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입실, 놀이선택, 놀이주도로 구성된다. 적응성은 놀이치료 장면에서 얼마나 적응적인 반응을 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긴장도, 감정표현, 상호작용, 정리로 구성된다. 유연성은 유아가 놀이치료 상황에서 얼마나 유연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놀이진행, 문제해결, 놀잇감 사용으로 구성되며, 구조화는 놀이치료 과정에서 유아가 얼마나 규칙에 맞게 구조화된 반응을 하는가를 나타내며, 제한 수용, 시간확인, 퇴실, 심리적 어려움 표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놀이반응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나타내는 반응을 말하며, 놀잇감 종류, 놀이유형, 놀이주제로 구성되어 있다(Lee, 2013). 본 척도는 유아와 치료자가 놀이치료실에 입실하고 퇴실할 때까지 보이는 유아의 반응을 관찰한 후, 이를 각 영역별로 1수준에서 4수준으로 나누어 채점한다. 반응의 수준이 높을수록 종결로 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가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도성 범주의 '놀이 주도' 문항을 예로 볼 때 1수준은 '아동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지 못하고 치료자에게 의지한다', 2수준은 '아동이가끔 주도적으로 놀이를 한다 혹은 치료자에게 과도하게 지시를 내리며 놀이한다', 3수준은 '아동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지만 치료자의 의견을 따른다'. 4수준은 '아동이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고 치료자를 놀이에 개입시킨다'로 구분되며, 놀이치료 장면을 관찰하여 1~4수준으로 채점한다.

유아의 반응내용 중 입실에 관련된 문항은 부모와 분리되어 유아가 놀이치료실로 입실하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서 본 연구에 적용될 수 없었다. 따라서 입실 내용은 치료자와 함께 놀이치료실에 거부하지 않고 들어오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유아의 반응 척도 중 놀이반응(놀잇감의 종류, 놀이유형, 놀이주제)은 수준별로 나누어 있지 않고, 놀이치료자가 내용을 적는 질적 분석으로 채점시 포함하지 않도록 개발자가 구성하고 있어(Lee, 2013), 통계적 채점에서는 제외하였다.

유아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박사 1인, 박사 수료자 1인이 평가자로 구성되었다. 평가자들은 놀이치료 장면 녹화 테이프의 10%에 해당하는 3사례를 함께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아동 반응 관찰 척도의 평정자간 일치도는 90.5%로 측정된 자료의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아동 반응 관찰 척도의 Cronbach's α 는 .82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1) 대상 선정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보육시설에서 실시되므로 2012년 7월 초 서울시 서대문구, 은평구, 마포구, 종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178곳에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서를 우편으로 보내어 협조를 구하였다. 참가 의사를 밝힌 보육시설 중 놀이치료실을 만들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보육시설의 규모가 가장 비슷하고 위치상으로 가까운 2곳이 선정되었다.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의 D어린이집과 은평구 소재의 S어린이집으로 선정되었다. 서대문구 소재의 D어린이집의 경우 실내 놀이터의 한쪽을 놀이치료실

로 구성하였고, 은평구의 S어린이집에서는 남아있는 방이 있어 방 전체를 놀이치료실로 구성하였다.

유아들의 놀이치료 전 보육교사들에게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후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자는 보육교사들을 통해 연구에 참여하는 유아들의 부모들에게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에 대한 안내서를 배부하였고,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유아들에 대해 부모 동의서를 받았다.

2) 사전 검사

유아들의 놀이치료 실시 전 사전 평가는 2012년 7월 16일~31일까지 실시되었다. 유아의 자아 지각 검사를 위해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인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이 함께 진행하였다. 유아의 문제 행동과 교사 상호 작용, 또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유아의 어린이집 담임보육교사가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의 문제 행동에 대한 설문지와, 유아의 발달과 문제 행동에 대한 심층 면접지를 부모에게 실시하였다.

3)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의 회기는 2012년 8월 10일부터 시작하였으며, 2012년 10월에 15일에 모두 종결하였다. 5명의 놀이치료자들은 일주일에 2회, 30분씩 놀이치료를 실시하였으며, 유아가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에는 그 주에 보강을 함으로써 모두 16회기를 진행하였다.

4) 사후 검사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종결된 후 2012년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사전

회기와 마찬가지로 연구자와 연구 보조자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자아인식검사를 다시 한 번 실시하였고, 사전 회기에 배부되었던 설문지를 담임교사와 어머니들에게 실시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 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의 문제 행동, 자아지각,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비모수 통계방법인 Mann-Whitney U검정과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실시하였다.

놀이치료 과정 중에 비디오 녹화한 내용을 관찰 척도를 사용하여 1회기와 16회기의 변화를 비모수 통계 방법인 Wilcoxon 순위합 검정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비디오 관찰은 아동학 박사 1인과 아동학 박사 수료자 1인이 함께 관찰하여 평가자간의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Ⅲ. 결과분석

1.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 행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서와 같이 실험집단의 경우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를 실시하기 전 평균 2.56($SD = .58$)에서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 실시 후 평균이 2.32($SD = .53$)

〈Table 2〉 The changes of infant's problem behaviors perceived by teachers

Variable	Group	Pre-test	Post-test	Z
		M(SD)	M(SD)	
Aggression	Experimental	2.19(.90)	1.86(.79)	-1.97*
	Comparative	2.24(1.02)	2.09(.97)	-.60
Attention /Hyperactivity	Experimental	3.24(.92)	3.06(.82)	-1.70
	Comparative	2.98(1.19)	2.77(1.08)	-1.17
Young children's problem behavior Sociality	Experimental	2.68(.64)	2.34(.59)	-2.64**
	Comparative	2.14(.72)	2.20(.77)	-.16
Morality	Experimental	2.51(.80)	2.26(.69)	-2.42*
	Comparative	2.39(.95)	2.29(.64)	-.35
Depression	Experimental	2.59(.74)	2.29(.63)	-1.57
	Comparative	2.27(.72)	2.33(.81)	-.04
Anxiety	Experimental	1.95(.59)	1.93(.45)	-.20
	Comparative	2.18(.77)	2.15(.54)	-.08
Total	Experimental	2.56(.58)	2.32(.53)	-2.79**
	Comparative	2.40(.78)	2.35(.77)	-.50

* $p < .05$. ** $p < .01$.

로 유의미하게 낮아져 유아의 문제 행동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Z = -2.79, p < .01$).

하위 요인인 공격성($Z = -1.97, p < .05$), 사회성($Z = 2.64, p < .01$), 도덕성($Z = -2.42, p < .01$)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 실시 후 유아들의 공격성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놀이치료를 통해 유아들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정서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회성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들의 또래 관계를 증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덕성이 감소한 것은 유아들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긍정적 경험을 체험하여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자아가 적절하게 성장함으로써 보육시설에서 규칙을 잘 지키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 행동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의 자아지각에 미치는 영향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문제 행동 유아의 자아지각은 Table 3에서와 같이 실시 전 평균 3.47($SD = .28$)에서 실시 후 평균 3.70($SD = .33$)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Z = -2.99, p < .01$). 따라서 보육기관에서

〈Table 3〉 The changes of infant's self-concept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Z
		M(SD)	M(SD)	
Cognitive ability	Experimental	3.61(.32)	3.80(.30)	-2.04*
	Comparative	3.40(.50)	3.67(.41)	-2.23*
Physical ability	Experimental	3.41(.45)	3.70(.48)	-2.05*
	Comparative	3.44(.70)	3.44(.58)	-.09
Peer acceptance	Experimental	3.43(.46)	3.77(.42)	-2.42*
	Comparative	3.29(.59)	3.58(.39)	-1.54
Mother acceptance	Experimental	3.41(.41)	3.50(.54)	-.83
	Comparative	3.33(.48)	3.52(.46)	-1.61
Total	Experimental	3.47(.28)	3.70(.33)	-2.99**
	Comparative	3.37(.43)	3.55(.38)	-1.76

* $p < .05$. ** $p < .01$.

놀이치료 실시 후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긍정적 자아상을 형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자아 지각의 하위요인에서는 인지적 능력($Z = -2.04, p < .05$), 신체적 능력($Z = -2.05, p < .05$), 또래 수용정도($Z = -2.42, p < .05$)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를 받은 유아들이 인지적 능력이나 신체적 능력 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였고, 또래 관계 안에서도 자신을 좀 더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지각의 하위요인 중 어머니 수용정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놀이치료과정에서 부모 상담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변화를 살펴보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하위 요인 중 인지적 능력은 통제집단에서도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유아를

발달선상에서 볼 때 유아들의 인지적 능력이 시간적 발달에 따라 자신의 인지적 능력이 발달했다고 느끼게 되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은 Table 4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교사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들에게만 접근하였고 부모나 교사들은 상담이나 교육이 배제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하위 요인 중 의존성은 실험집단에서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 실시 전 평균이 3.23(SD

〈Table 4〉 The changes of teacher-infant relationship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Z
		M(SD)	M(SD)	
Closeness	Experimental	3.39(.52)	3.48(.40)	-0.90
	Comparative	3.52(.50)	3.72(.39)	-1.44
Conflict	Experimental	4.01(.57)	4.00(.47)	-0.88
	Comparative	4.08(.38)	3.73(.74)	-0.75
Dependency	Experimental	3.23(.61)	3.57(.62)	-1.99*
	Comparative	3.53(.55)	3.77(.51)	-1.55
Total	Experimental	3.64(.38)	3.71(.31)	-0.60
	Comparative	3.79(.27)	3.72(.37)	-0.31

* $p < .05$.

= .61)에서 실시 후 3.57($SD = .6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 = -1.99, p < .05$). 의존성의 평균 점수가 상승되었다는 것은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 실시 후 교사에게 유아가 의존하는 정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전체 점수를 환산하기 위하여 의존성과 갈등 영역의 문항들을 역채점 하였으므로, 의존성 점수의 상승은 반비례하여 의존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도성이 발달하게 되는 유아기에 놀이치료를 통해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행동하고, 주

도적으로 탐색하는 행동이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4.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5에서 살펴본 결과,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긍정적 또래 상호작용이 실시 전 평균 1.92($SD = .61$)에서 실시 후 평균 2.35 ($SD = .45$)

〈Table 5〉 The changes of infant's peer interaction

Variables	Group	Pre-test	Post-test	Z
		M(SD)	M(SD)	
Positive peer interaction	Experimental	1.92(.61)	2.35(.45)	-2.42*
	Comparative	2.10(.73)	2.21(.43)	-0.38
Negative peer interaction	Experimental	1.83(.33)	1.70(.43)	-0.87
	Comparative	2.00(.50)	1.81(.38)	-0.75

* $p < .05$.

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Z = -2.42, p < .05$).

이는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를 통해 긍정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놀이치료가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또래 상호작용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과정에서 유아의 반응 변화 관찰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1회기와 16회기의 유아의 놀이치료 반응을 비디오로 관찰하여 1수준에서 4수준으로 평가하였다. 1수준은 가장 미숙하고 낮은 반응 수준을 말하고, 4수준은 적절하고 높은 수준의 반응을 말한다. 즉, 반응 값이 4에 가까울수록 높은 수준의 적절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Table 6에서 살펴보면 아동 반응 중 반응양식은 1회기와 16회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Z = 3.19, p < .01$). 하위문항별로 살펴보면, 유아의 언어표현($Z = -2.97, p < .01$), 대화 형태($Z = 2.60, p < .01$), 유아의 행동/표정($Z = -3.13, p < .01$), 반응속도($Z = -2.45, p < .05$)에서 회기가 진행될수록 유아들은 놀이시에 적절한 수준의 반응양식으로 나타났다. ‘언어표현’은 1회기($M = 2.36$)에는 자신의 놀이나 생각에 대해 대부분 단어로 표현하거나 단편적으로 설명하였는데, 16회기($M = 3.21$)에는 자신의 놀이나 생각에 대해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대화 형태’는 1회기($M = 2.14$)에는 논쟁하거나 으스스대기, 비난하기, 지시하기 등의 부정적 형태의 대화에서 16회기($M = 3.21$)에는 질문하거나 설명하기 등의 긍정적인 형태의 대화가 관찰되었다. ‘행동/표정’은 1회기($M = 2.21$)에는 행동이

다소 부자연스러우며 눈맞춤이 원활하지 않았는데, 16회기($M = 3.14$)에는 치료자와 눈맞춤이 잘되며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하였다. ‘반응속도’는 1회기($M = 2.93$)보다 16회기($M = 3.36$)에 치료자의 상호작용 중에 나타나는 반응속도가 적절한 수준으로 변화하였다.

반응 내용 또한 1회기와 16회기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Z = -3.11, p < .01$). 놀이치료 1회기($M = 2.95$)보다 16회기($M = 3.42$)가 반응내용의 수준이 올라가 좀 더 적응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응 내용의 하위 범주별 1회기와 16회기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도성($Z = -2.08, p < .05$), 적응성($Z = -3.14, p < .01$), 유연성($Z = -2.50, p < .05$), 구조화($Z = -2.34, p < .05$)의 모든 범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응 내용 범주별 문항들의 1회기와 16회기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주도성 범주의 문항인 놀이선택에서 1회기와 16회기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Z = -2.33, p < .05$). 즉, 1회기($M = 3.50$)에는 자발적으로 놀이선택을 하지 못하거나 치료자의 격려를 받은 후 원하는 놀이를 선택하는 반응을 보였으나, 16회기($M = 4.00$)에는 자발적으로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에 몰두하는 높은 수준의 반응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입실과 놀이주도 범주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입실의 경우 1회기와 16회기 모두에서 4수준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자신이 늘 생활하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입실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적응성 범주의 1회기와 16회기 차이를 살펴보면, 긴장도($Z = -3.27, p < .01$), 감정표현($Z = -3.03, p < .01$), 상호작용($Z = -3.03, p < .01$)의

<Table 6> The response change of 1 session to 16 session of childcare center based play therapy

Variables		1 Session	16 Session	Z
		M(SD)	M(SD)	
Response style	Appropriate language	2.36(1.21)	3.21(.80)	-2.97**
	Conversation type	2.14(1.23)	3.21(.89)	-2.60**
	Movement/Gesture	2.21(.89)	3.14(.66)	-3.13**
	Response rate	2.93(.83)	3.36(.50)	-2.45*
	Total	2.41(.95)	3.23(.63)	-3.19**
Initiation	Opening	4.00(.00)	4.00(.00)	.00
	Play choice	3.50(.65)	4.00(.00)	-2.33*
	Play initiation	3.43(.51)	3.86(.54)	-1.73
	Total	3.64(.36)	3.95(.18)	-2.08*
Adaptability	Comfort level	2.50(.65)	3.93(.27)	-3.27**
	Feeling expression	2.00(.78)	3.14(1.03)	-3.03**
	Interaction	2.14(.95)	3.29(.61)	-3.03**
	Clean	2.86(1.10)	3.00(.88)	-.35
	Total	2.38(.53)	3.34(.51)	-3.14**
Response content	Play progress	3.29(.73)	3.86(.36)	-2.53*
	Problem solving	2.93(1.00)	3.07(.83)	-.58
	Toys use	2.93(.62)	3.07(.83)	-1.89
	Total	3.05(.52)	3.41(.42)	-2.50*
Structuring	Limit accept	4.00(.00)	3.64(.63)	-1.89
	Time check	1.86(.36)	2.36(.84)	-1.84
	Ending	3.71(.73)	3.64(.93)	-.27
	Psychological conflict's symbol	1.36(.63)	2.36(.50)	-3.07**
	Total	2.73(.21)	3.00(.35)	-2.34*
Total		2.95(.19)	3.42(.29)	-3.11**

* $p < .05$. ** $p < .01$.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긴장도’에서 1회기($M = 2.50$)에는 입실 후 긴장도가 높아 편안하게 놀이하지 못하였으나, 16회기($M = 3.93$)로 갈수록 긴장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감정표현’에서 1회기($M = 2.00$)에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을 가끔 표현하거나 부자연스러웠다면, 16회기($M = 3.14$)에는 감정표현이 대부분 자연스럽게 나타났다. ‘상호작용’에서

1회기($M = 2.14$)에는 유아가 치료자와 상호작용하는게 서툴며 치료자보다 놀잇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16회기($M = 3.29$)에는 유아가 치료자와 좀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유연성 범주의 1회기와 16회기 차이를 살펴본 결과, 놀이진행($Z = -2.53, p < .05$)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회기($M = 3.29$)에서 16회기($M = 3.86$)로 갈수록 놀이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과 놀잇감 사용 문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회기가 진행되어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시도하는 행동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놀이 확장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반응 내용 중 구조화 범주의 1회기와 16회기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어려움 표상($Z = -3.07, p < .01$) 문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1회기($M = 1.36$)에는 유아가 심리적 어려움을 언어나 놀이로 표현하지 못했다면, 16회기($M = 2.36$)에는 심리적 어려움을 놀이 상황에서 나타내는 반응이 관찰되었다. 한편 구조화의 범주에서 제한수용, 시간 확인, 퇴실 문항은 회기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제한 수용의 경우 1회기와 16회기 모두 평균 4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대부분의 아동들이 제한받을 행동을 하지 않거나 제한을 즉시 받아들이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을 적절하게 확인하는 행동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1회기($M = 1.86$)에 비해 16회기($M = 2.36$)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실의 경우 1회기와 16회기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유아들이 놀이시간을 지키고 퇴실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제 행동 경계선 유아들에게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유아들의 문제 행동 개선과 자아지각,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4~5세의 유아 28명을 선정하고, 이들에게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를 실시한 후 통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의 문제 행동 개선에 영향을 주었다. 유아의 문제 행동은 부모와 교사가 함께 보고하였는데, 교사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부모에게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보육시설에서의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는 유아에 대해 문제 행동을 지각하지 못하거나 변화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시설에서의 문제 행동 유아들이 임상 범주에 속하는 유아들이 아니라 경계선상의 위험적 요소가 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문제 행동의 하위영역인 공격성, 사회성, 도덕성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는 아동중심놀이치료가 유아에게 다른 관계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공감적 이해, 따뜻함, 안전함을 제공해줌으로써, 유아의 다양한 문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Hwang, 2002; Jeon, 2011; Yoo, 2002). 특히 공격성이나 사회성, 도덕성은 보육시설 적응에 중요한 외적인 변화이다.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를 통해 유아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또래 관계를 증진시켰으며, 보육시설에서 규칙

을 잘 지키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의 자아지각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를 실시한 실험집단의 유아들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를 통해 유아들은 자신의 인지적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신체적 발달에서도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또래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이 더 잘 수용된다고 느끼고 있어 긍정적인 자아상의 변화를 보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치료 경험을 통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성장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셋째,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중 의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사에게 의존함으로써 부정적 상호작용을 하는 유아들은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를 통해 주도성이 발달하여,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목적에 맞는 행동과 주체적으로 탐색하는 행동이 늘어나게 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사와 유아와의 긍정적 관계가 유아의 이후 사회적 발달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Birch, 2002; Jang, 2000; Jeon, 2001; Kesner, 2000)들을 살펴볼 때,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를 통해 유아들이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넷째,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할 경우 심리적 문제는 물론 부적응, 비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문제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Crick, 1996; Kochenderfer & Coleman, 1996; Parker & Asher, 1993; Rhee, Kim, & Oh, 2001). 따라서 보육시

설에서 긍정적으로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보육시설의 적응에 매우 중요한 변수이며, 그 이후 사회적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의 문제 행동이 감소함에 따라 긍정적인 자아 발달을 돕고 사회적인 발달까지도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1회기와 16회기간의 유아의 놀이치료 반응 변화를 관찰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치료 과정 중에 나타난 반응양식은 1회기보다 16회기에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1회기보다 16회기에는 유아들이 적절하게 자기의 생각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으며, 치료자와의 눈맞춤도 원활히 나타났다. 또한 초기에는 논쟁하거나 비난하기, 지시하기 등의 부정적 대화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종결로 갈수록 긍정적인 형태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태도가 관찰되었다.

반응 내용의 주도성, 적응성, 유연성, 구조화 반응 모두에서 1회기보다 16회기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 주도성의 범주 중 놀이선택 문항에서 볼 때, 1회기에서는 놀잇감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치료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반응이 많았으나, 종결회기에서는 자발적으로 놀이를 선택하고 주도하여 치료자를 개입시키는 반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단계의 놀이치료에서 유아들이 놀이의 선택을 힘들어하고, 치료자에게 의지하려는 등의 반응이 관찰된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Lee, 2012; Yoo, 1999).

적응성의 면에서는 1회기에 긴장하며 편안하게 놀이지 못하였고,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게 못하고, 치료자와 상호작용하기보다 놀잇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등의 적응성 수준이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6회기에는 편안한 정서 상태를 보이며,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치료자와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종결로 갈수록 치료자와 적절하고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Lee, 2012; Shin, Lee, & Han, 2002).

유연성 면에서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 1회기에서는 유아가 놀이에 몰입되지 못하고 중단되는 반응이 많이 나타난 반면, 16회기에서는 놀이의 몰입도와 지속성이 적절한 수준에 이르는 모습이 나타났다. 구조화 요인 중에서는 심리적 어려움 표상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1회기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놀이상황에서 표현하지 못했다면, 16회기에는 심리적 문제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로써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가 유아의 문제 행동을 개선하고, 유아의 자아지각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나타났다. 또한 보육기관에서의 놀이치료를 통해 놀이치료 과정에서의 유아의 놀이치료 반응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시설에서 심각한 정서적인 문제를 보이는 유아들을 선별하고, 경계선에 속하는 유아들에게 예방차원의 치료를 실시하여,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예방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둘째, 문제 유아들로 인해 보육시설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유아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문제 아동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셋째, 놀이치료의 효과를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의 경우 단일 사례연구이거나 집단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 14명을 사례로 구성하여,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를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유아들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연령을 좀 더 확대하여 연령에 따라서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를 적용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문제 행동 경계선 범위에 속하는 유아들이 보육기관에서 놀이치료를 받은 이후에 학교 적응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기 위한 추적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교사의 보고는 유아의 문제 행동이나 상호작용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부모의 보고에서는 문제 개선이 나타나지 않았다. 놀이치료를 통해 해결된 문제들이 실제 가정에까지 연결되기에는 더욱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연구의 통제를 위해 놀이치료자가 부모나 교사를 상담하는 부분을 제외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에 대해 부모를 이해시키고 양육적 기술을 교육하는 부모 교육이 보완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thena, A. D., Lois, J. C., & Charles, E. S. (2010). *School-Base Play Therapy*. Seoul: Sigma Press.

- Bae, J. H., Lee, Y. Y., & Cho, Y. K. (2013).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s of parent-teacher conferences regardi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3*(5), 89-114.
- Behar, L., & Stringfield, S. (1974). A behavior rating scale for the preschool 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10*(5), 601-610.
- Birch, S. H., & Ladd, G. W. (1997).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rch, S. H. (2002).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peers and teachers: Assessment, linkages between relationship systems and associations with school adjustment.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Section A humanities & Social Sciences, 62*(8-A), 2680, US: UMI.
- Blanco, P. J. (2010). The impact of school-based child centered play therapy on academic achievement, self-concept, and teacher-child relationship st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USA.
- Choi, H. Y. (2004). Children's peer interactions in relation to teacher's beliefs and teacher behavi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M. K. (2009). Effects of dual-income couples on self-concept and adaptation to nursery facilities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 Chung, K. S., & Lee, E. H. (2003). A case study on child-centered play therapy for a young child with oppositional/defiant behavior problems. *The Busan Association of childhood Education, 12*, 51-78.
- Coie, J., Dodge, K.,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9*, 557-570.
- Crick, N. R. (1996). The role of 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Ewing, A. R., & Taylor, A. R. (2009). The role of child gender and ethnicity in teacher-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ren's behavioral adjustment in preschool.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1), 92-105.
- Fantuzzo, J. W., Manz, P. H., & McDermott, P. (1998). Preschool version of the social skills rating system: An empirical analysis of its use with low-income childr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6*(2), 199-214
- Han, M. H. (1996). A Study on stress, perceived social supports, an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Han, Y. M., An, S. H., & Chae, Y. S. (2001). Using sand play as a therapeutic tool in the early childhood setting.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1*(1), 141-160.
- Hamre, B., & Pianta, R. (2001). Early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the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h grade. *Child Development, 72*(2), 625-638.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up, W. W. (1967). Peer reinforcement and social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38*, 1017-1024.
- Howes, C. (2000). Social-emotional classroom climate in child care, child-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second grade peer relations. *Social Development, 9*, 191-204.
- Hwang, M. S. (2002). *Child-Centered Play Therapy*. Seoul: Changjisa.
- Kauffman, J. M. (1997).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 (6th ed.)*. NJ: Prentice Hall.
- Kang, J. H., & Oh, K. J. (2010). Effects of temperament on predicting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early childhood externalizing problem: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with applied latent growth mixture modeling.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9*(3), 875-894.
- Kesner, J. E. (2000). Teacher characteristics and the quality of child-teacher relationship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8*(2), 133-149.
- Kim, K. S., & Kim, Y. H. (2011). Young children's adjustment in day care centers and reciprocal perceptions between teachers and young children. *The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4), 141-160.
- Kim, J. H. (2001). Aggression, atrophic, and relation to peer group by children's gender: Focus on familiarity and arbitration influence of mother and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Y. (2007). The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marital conflict and preschooler's emotion regulation on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Y., & Hwang, H. J.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the child's temperament and psychological variables within the familial environment to behavior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8*(3), 23-50.
- Kim, Y. H. (2006). A study on the preschool children's self-concept and social skills according to their peer popula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imhae, Korea.
- Kim, Y. K. (2013). A case study of theraplay for a preschool-age adopted girl with sleep terror disorder. *The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6*(3), 73-91.
-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1103-1118.
- Koh, Y. J. (2009). The effects of the group theraplay program using traditional play on the low-income group children's self-concepts and peer interac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ungji University, Seoul, Korea.
- Koh, I. S. (2008). A study for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eacher's behavior checklis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Kyu, S. K., & Kim, S. H. (2008). The effects of young children's anger control program on anger and aggressiveness.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 13(1), 301-321.
- Jang, M. K. (2000). Effects on kinder therapy for teachers' sensitivity toward children and improvement of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The Korean Association for Play Therapy, 3*(2), 63-73
- Jang, M. K., Son, K. O., & Kim, S. E. (2009). Analysis of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parents and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the filial therapy.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8*(2), 325-340.
- Jeon, H. J. (2001). Literature review of prosocial behaviors in preschoolers: Theoretical model for aggression prevention and prosocial behavior improvement. *The Journal of Child Educare Research, 7*, 61-73.
- Jeon, S. Y. (2011). Change of emotional expression in play therapy for a child with anxiety disorder. *The Korean Association of Child Psychotherapy, 6*(2), 59-78.
- Jeong, K. B., & Cho, S. H. (2009). A qualitative study on beginning counselors' experience of stress. *Th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0*(2), 45-60.
- Jerom, E. M., Hamre, B. K., & Pianta, R. C. (2009). Teacher-child relationships from kindergarten to sixth grade: Early childhood predictors of teacher-perceived conflict and closeness. *Social Development, 18*(4), 915-945.
- Jung, G. S., & Gu, J. H. (2004). A study on improving social and emotional problem behaviors of young children through a group art therapy intervention program.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3*, 101-127.
- Jung, G. S., & Lee, E. H. (2003). A case study on child-centered play therapy for a young child with oppositional/defiant behavior problem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2*, 51-78.
- Ladd, G. W., & Burgess, K. B. (2001). Do relational and protective factors moderate the linkages between childhood aggression and early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72*(5), 1579-1601.
- Landreth, G. L. (2010). *Play therapy: The art of the relationship (2nd ed.)*. Seoul: Hakjisa.
- Lee, D. J., & Chae, S. G. (2010). Effects of group theraplay program on reduce aggression of infants at the welfare facilities. *The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14*(3), 57-73.
- Lee, E. H., Choi, H. Y., & Kim, M. H. (1990). Development of a social competence scale for young children. *Yonsei Journal of Euthenics, 4*, 175-189.
- Lee, H. O. (2009). The study on the home experiential role of the mother's with decreasi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S., & Han, Y. J. (2012). Responses of the child and therapist in child-centered play therapy regarding the children's problem type, the therapists' levels of psychological burnout and the process of play therapy.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30*(6), 129-150.
- Lee, H. S., & Han, Y. J. (2013). The development of an observation scale to facilitate a valid and reliable analysis of the responses of child and therapist in child-centered play 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4*(1),

- 141-159.
- Lee, J. S. (2001). Preschool children's representation of attachment: Associations with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S., & Baek, J. E. (2004). The relation between children's attachment, self-perception, and behavior problems.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9(3), 149-168.
- Lee, J. Y. (2012). Tes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nd mother's temperaments and child's behavioral problem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1(3), 801-822.
- Lee, J. Y., & Kim, E. K. (2009). The effects of social-emotional program with peer on emotional regulation strategy and pro-social behavior of the child with at-risk ADHD.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9(3), 123-151.
- Mash, E. J., & Wolfe, D. A. (2002). *Abnormal child psychology*. CA: Wadsworth/Thomson Learning.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Statistical year book 2013*.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1). *Handicapped children rehabilitation therapy work guide*. <http://www.mw.go.kr/>
- Moon, Y. K., & Lee, Y. (2012). The Effects of maternal emotional availability on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problem behaviors: The mediating effects of preschooler's effortful control. *Th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50(1), 103-119.
- Murray, C., Murray, K. M., & Waas, G. A. (2008). Child and teacher report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Concordance of perspectives and associations with school adjustment in urban kindergarten classroom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1), 49-61.
- Myers, S. S., & Pianta, R. C. (2008). Developmental commentary: Individual and contextual influences on student-teacher relationships and children's early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7(3), 600-608.
- Park, J. H., & Song, H. N. (2011). The effects of a self-regulation ability improvement program on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emotional self-regulation abilities and on reduction in aggression. *The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1(1), 157-183.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Petty, K. (2009). Using guided participation to support you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Young Children*, 64(4), 80-85.
- Pianta, R. C. (1999). *Enhancing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teach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ost, P. (1999). Impact of child-centered play therapy on self-esteem, locus of control, and anxiety of at-risk 4th, 5th, and 6th grad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lay Therapy*, 8, 1-18.

- Rhee, U. H., Kim, J. Y., & Oh, W. J. (2001). Peer status and friendship as predictor of children's school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2(1), 1-18.
- Schumann, B. R. (2004). Effects of child-centered play therapy and curriculum-based small-group guidance on the behaviors of children referred for aggression in an elementary school set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Texas, USA.
- Schwartz, D., Mcfadyen-Ketchum, S. A.,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9). Early behavior problems as a predictor of later peer group victimization: Moderators and mediators in the pathways of social risk.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 191-201.
- Shaffer, D. R. (1988).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2nd ed.)*. Pacific grove, California: Books Cole publishing Company.
- Shin, E. S., Kwon, M. K., & Jeong, H. B. (2010).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kills, peer play interactions and social play behaviors. *The Journal of Korea Early Childhood Education*, 17(4), 183-209.
- Shin, J. H., & Chung, N. W. (2007). Qualitative analysis of a novice therapist's outcome-based on helpful experienc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4), 889-911.
- Shin, S. J., Lee, Y. M., & Han, J. W. (2002). *Child-Centered Play Therapy*. Seoul: Dongseo Munhwawon.
- Verschueren, K., Marcoen, A., & Schoefs, V. (1996). The internal working model of the self, attachment and competence in five years olds. *Child Development*, 67, 2493-2511.
- Walker, M., Berthelsen, D., & Irving, K. (2001). *Temperament and peer acceptance in children*.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Woo, S. J.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kindergarteners' self-perception and peer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Yoo, M. S. (1999). An analysis of child's behavior and therapist's response in play therapy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Yoo, M. S. (2002). A case study on the effect of play therapy for 4-year-old girl with anxiety disorder. *The Korean Association for Play Therapy*, 5(1), 45-54.
- Zelman, A. (1996). *Carely intervention with high-risk children*. New York: Aronson.

2013년 10월 31일 투고, 2014년 1월 19일 수정
2014년 1월 29일 채택